

轉換期的 經營姿勢



金

裕

璋

△國會議決委員長▽

1. 國際經濟의 異常氣流

世界經濟의 움직임이 또 한번 異常氣流를 나타내고 있다. 景氣回復이 늦어질 可能性이 짙어져 가고 있는 것과 高率인플레이가 생각보다 빨리 再現할지도 모를 일이란 2가지의 點이 그것이다.

인플레이率이 鈍化되었고 景氣가 今年 下半期, 또는 늦어도 來年 上半期에는 本格的인 回復期에 들어설 것이라고 世界의 著名學者, 有力한 研究機關, 先進諸國의 政府들이 大體로 같은 展望을 하여왔다. 하기는 例外的으로 不景氣의 試鍊을 앞으로 2—3年 더 겪어야 할 것이란 豫상을 하는 側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前者(今年 下半期 또는 來年 上半期에 景氣回復段階에 들어간다는 豫측)는 그 理由로 先進諸國들의 景氣浮揚策이 奏効할 것 등을 들고 있는 것과는 달리 後者는 理論上 뒷받침으로 뚜렷한 것이 없었으므로 慎重論이란 評價를 받는 대신에 忌避라고 默殺 當하는 상태이었다.

한편 景氣가 일단 회복된 後에는 甚한 인플레이가 再現할 것인바 그 時期는 77年初쯤으로 보는 側이 漸次 增加되어 왔었다. 그런데 景氣가 次 회복되어 보지도 못하고 輕微하기는 하나 인플레이率이 다시 高개를 들기 시작한 것을 5—6兩月中 世界 主要先進國의 物價動向에서 알 수 있다. 더우기 國際金利의 上向的인 움직임등이 앞으로 인플레이率의 上昇을 더욱 顯在化시킨다면 73年 「오일쇼크」가 물고온 世界的인 超高率의 인플레이가 끝내 安定의 線까지는 내려가 보지 못하고 「鈍化」線에서 다시 上昇「코오스」로 되돌아서는 셈이 된다.

2. 緊縮政策에서 景氣浮揚으로

오늘날 景氣回復의 成敗를 左右할 것은 첫째로 多數의 開發途上國水準 및 그 以下 나라들의 熱意나 努力이 아니고 幅 넓게 보아서 OECD 加盟國인 24個先進工業國등 가운데서의 相當數 主要先進國들의 그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 景氣回復을 위해서 取하고 있고 取할 수 있는 方法은 緊縮政策 대신에 景氣浮揚政策을 實施하고 國內産業保護貿易政策에서 貿易自由化에로의 還元이라고 흔히들 생각해 왔다.

그런데 主要先進國들의 움직임을 본다면 保護主義 貿易政策 의止揚이란 點에는 불만한 實績을 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觀點如何에 따라서는 오히려 激化하는 感조차 없지도 않다. 하지만 對照的으로 景氣浮揚策을 쓰게 된 側面은 나라에 따라서 未洽한 例를 볼 수 있으며 大勢가 緊縮政策에 대한 袂別이 시작되었다.

둘이켜 볼 때 73年 겨울의 石油波動을 이어 받은 74年劈頭부터 美國은 通貨信用 政策(金融緊縮政策)에 依해서 인플레이에 對處하는 傳統的인 政策手段을 避하고 財政膨脹方法으로의 不景氣對策에 置重하였다. 즉 74年の 2大當面課題이었던 인플레이와 不景氣에 對處한 政策措置로 諸國 및 日本이 緊縮政策을 驅使한 것과는 對照的인 美國의 政策이었다.

그 後의 經過를 본다면 美國은 半年이 채 못되어 緊縮政策으로 轉換하였는데 그 理由는 더 말할 것도 없이 財政膨脹이 인플레이를 刺戟한 때문이다. 그리고 EC 諸國은 美國의 政策轉換과 때를 前後하여 緊縮緩和 政策을 쓰게 되었다. 緊縮政策을 더 以上 持續하기 어려울

만치 不景氣의 深度가 甚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이 美國과 EC 諸國은 時期的으로 엇갈린 인플레이와 不景氣對策을 強行해 온 끝에, 지금은 모두 인플레이 對策보다도 景氣浮揚에 經濟政策을 置重하게 되었다. 그는 또 인플레이率이 鈍化하였다는 說明이기도 한 것이다. 다만 日本만이 74年 以來 줄곧 緊縮政策(需要抑制政策)에 一貫해 왔는데 國際收支改善에 일단의 成功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기가 今年만해도 세 차례의 景氣浮揚對策을 發表實施한 바 있지만 微溫의이다. 또 國內·外(日本國內의 企業界 및 國外的 美·EC와 많은 開途國들)의 要求와 壓力에 못겨겨서 탈바꿈을 하였다는 評價를 免하기 어려운 程度이다.

日本の 今年度 輸入目標은 725億弗인(輸出目標은 通關 베이스로 683億弗)인데 지난 2月부터 每月 4.7%~11.6%이나 比前年 同期의 輸入 減少를 계속하여 通產省도 今年末까지 年間目標을 大幅 下廻할 것으로 展望하고 日本輸入會議側은 輸出目標보다 95億弗이나 적은 630億弗線에 輸入이 激減될 것이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日本은 輸入抑制, 消費節約政策을 通해서 國際收支의 改善은 이룩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리켜 「隣近窮乏化 政策」이라는 非難이 周邊開途國들로부터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태서 日本政府內에도 새로운 輸入政策을 摸索, 檢討, 實施하여 輸入量을 늘리는 方向을 잡아보려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同時에 「플레트」 및 其他의 輸出增進을 아울러 꾀하여 昨年以來 構築해온 國際收支改善 패턴이 허무러지지 않을 計算下에서만 輸入門戶의 擴大를 期待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景氣浮揚策이 緊縮政策에 優位하다고 말하기만도 어려운 實證이 위에서도 약간 顯

及한 바와 같이 점점 뚜렷해져 가고 있고 본
 즉 本格的인 景氣浮揚에 置重轉換하는데 대한
 日本의 망서림을 日本自體로서는 合理化시킬
 수 있고 또 客觀性이 없다고 한마디로 말해치
 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대개의 나라가(主로
 先進國)가 景氣浮揚策을 쓰게되자 資金需要가
 늘어나서 國際金利는 上向의 方向을 잡기 시
 작하고 原資材國際時勢도 一部品目만이 오르
 는 「코오스」로 움직이며 昨年과 같은 高率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賃金이 引上되는 등등을
 背景으로 하여 인플레이率在 上昇傾向을 나타내
 고 있다.

「사이먼」美國財務相이 美國의 景氣가 回復
 되기 시작하는 이 時點에서 인플레이 年率을 6~
 7% 展望하게 되는 것은 危險한 일이라고 憂慮
 를 表明한 것은 오늘날 先進國들의 共通된 苦
 悶을 말해 준 것이다.

3. 景氣回復의 持續性

以上과 같은 세계 經濟의 움직임에 適應하
 면서 明日을 企劃해야 하는 企業의 苦悶은 尋
 常치가 않다.

① 景氣回復이 약간 늦어진다는것 ② 先進
 諸國들의 景氣浮揚策의 強度가 주춤해 지는것
 ③ 인플레이率在 多少 높아지는것 ④ 主要原資
 材의 國際時勢가 一部品目を 除外하고는 高率
 의 下落狀態를 持續하고 있는것 ⑤ 日本과 西
 獨을 除外한 先進國들의 失業者가 增大하여
 生産增大, 出荷增大, 在庫減少의 大勢(나라와
 때에 따라서의 例外가 있으나)와는 不調和를
 示顯하고 있는 것 등등의 國際經濟與件은 모
 든 나라의 企業으로 하여금 갈피잡기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貿易依存度가 75%線인 韓國
 의 企業은 國際經濟의 變動影響을 敏感하게
 받기 때문에 더 한層 現實把握과 將來展望(國

際經濟의 推移)에 銳利하고도 慎重하지 않아서
 는 안될 立場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우리 企業界는 무엇보다
 먼저 景氣回復이 本格的으로 시작할 時期가
 언제쯤일까를 일단 再檢討할 冷靜性을 喚起시
 켜 보아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같은 時期의 測定이 企業 姿勢
 로서 대단히 重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까지 專門家들이 異口同聲 해 오다시피한 75年
 下半年期 또는 76年 上半年期의 景氣回復에의 轉
 換이 설사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時差가 있
 을것 같지는 않다. 그는 主要先進國들의 景氣
 浮揚策이 이미 執行中에 있기에 말이다.

다만 企業經營上 새로운 留意가 必要하게
 된 것은 앞으로 있을 回復後의 好況期間이 짧
 아질 可能性이 짙은 點이다. 景氣가 4段階 또
 는 便利上 2段階로 區分되는 好況과 不況의
 循環過程을 되풀이 하는 것은 說明의 必要가
 없는 일이며 앞으로 景氣가 回復된 後에도 73
 年에 시작된 「오일쇼크」 以前의 상태로 되돌
 아 가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굳어졌다고 하
 겠다. 그러나 「인플레이」가 77年初에 再現할 것
 을 展望하는 見解가 同調의 幅을 높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 回復될 景氣의 持續期間
 의 測定에는 專門家들의 손에 대어져 있지 않
 다. 여기에 企業社會의 아쉬움이 있다 하
 겠다.

4. 原資材와 食糧問題의 새 動態

우리 企業界는 ① 짧은 好況 期間일지는 모
 르지만 世界景氣가 멀지 않아 回復될 것을 前
 提로 하여 ② 다음과 같은 主要原資材의 國際
 時勢落調가 어느 線까지는 繼續될 것을 豫期
 하면서도 特定物資의 예상外價格 暴騰이 있을

경우에는 主要原資材의 國際時勢에 連鎖反應을 일으킬 可能性을 아울러 勘案하고 ③ 美·日 EC 및 其他 輸出對象地域의 保護主義 貿易政策이 後退하지 않을 것을 勘案하는 海外市場對策을 세우는 한편 國內市場擴張에도 새로운 感覺을 앞세워야 하며 ④ 生産分野에서는 그 나름의 長時日이 所要되는 技能人力의 養成을 서두르고 國內資源의 開發 그리고 輸入과 國內生産을 모두 節約과 再生, 活用に 注力하며 ⑤ 內需購買力의 動向豫測과 國際收支의 壓力에서 올 輸入規制의 強化에 對備하는 등의 經營姿勢再定立 또는 合理化된 經營理念과 方向의 再認識이 促求된다.

먼저 主要原資材와 食糧의 6月末 國際時勢를 지난 1月の 對比해 본다면 原木이 立方當 60弗에서 47弗에 폴리에틸렌은(4月對比) 625弗에서 495弗에, 쌀이 402弗에서 325弗에(以下同當), 小麥은 164弗에서 125弗에, 大豆가 245弗에서 195\$에 각각 暴落되었다. 다만 原毛, 나일론糸 폴리에스터等 一部纖維類, 알주의 미늄塊, 亞鉛塊, 古鐵, 生 고무 펄프등은 小幅度 上昇을 示顯하고 있다.

原資材의 國際時勢가 이와 같이 暴落의 大勢를 보이게 된 것은 첫째로 輸入國들의 需要不振 둘째로 74年中 國際時勢 續騰過程에서 輸入國側의 備蓄輸入이 過多하여 아직도 在庫가 많은 大勢일 뿐만 아니라 國際時勢가 續落段階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景氣의 本格的 回復이 늦어질 展望인것등의 與件에 緣由해 있다.

한편 國際市場의 穀價가 暴落된 것은 世界의 食糧主産地가 蘇聯 등을 例外로 하고는 大體로 豊作인데다가 美·日등 大消費國의 消費가 減少되었기 때문이다.

食糧문제가 長期的인 眼目에서 人類가 안고 있는 最大難題인 것은 別問題로 하고 75-76 食糧年度의 需給과 價格問題는 意外의 好轉이

期待되고 있다. 다만 한가지 注目되는 것은 蘇聯이 7月上·中旬에 食糧 1千萬톤의 輸을 對美交涉하기 시작한 사실의 推移이다.

蘇聯이 約 7百萬톤의 食糧輸入을 하게 되라는 豫測은 이미 있었지만 뜻밖에 1千萬톤로 輸入希望量이 올라갔고 한편 캐나다産糧의 相當量을 벌써 輸入한 蘇聯이라고도므로 꺼림직한 움직임이다. 하기는 73年 여에 美國이 食糧輸出을 規制하였을 만큼 世界食糧危機를 낳는 最大·直接的인 動機이었 蘇聯의 大買占事件과는 規模가 다르다. 「年」에 蘇聯이 美國産食糧을 서둘러 輸入한은 무려 1千 8百萬톤이었다. 아무튼 今年 蘇聯이 美國産 食糧 1千萬톤을 輸入함으로써 그것이 또 食糧輸入國들의 競争輸入의 導火이 되고 따라서 食糧의 國際時勢 上昇 主要資材의 國際時勢에 대한 上昇要因으로 波及고 나아가서 10月 1日을 期해 引上하려고 OPEC(石油輸出國機構)의 原油價引上率에 牽連되는 結果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음 간절해진다.

5. 國內·외의 市場 開拓戰略

둘째로 海外市場과 國內市場의 開拓에 即應의 感覺度를 높여야 할 企業의 立場이 우리의 輸出이 美·日兩國에 偏重되어 있는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年間 46億의 總輸出(74年)을 하는데 힘겨웠던 우리인데 日入超가 12億弗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앞으로 輸出對象 地域의 偏重止揚은 勿論이고 主된 輸出對象國의 輸入規制를 撤廢시키 努力 그리고 輸出商品의 高級化와 生産 「트 다운」에 挑戰的인 創意등이 要求된다. 이를 하나만 들자면 日本을 主輸出對象地로

고 있는 生糸를 網織物化시켜서 歐洲地域에 輸出하는 體制의 擴大強化 할 것 등도 그것이다. 한편 國內市場의 새로운 擴大可能地域에 企業의 눈이 물려져야 할 일이다. 즉 農村市場의 向上事實에 注目해야 한다. 近年 農村經濟는 어느 사이엔가 刮目할만큼 水準이 높아져서 農村家口當所得이 都市勤勞者家口當所得을 4.5%나 上廻하게 되었다. 더우기 앞으로는 그 隔差가 해마다 벌어질 것을 豫測하기도 어렵지 않다.

예를 들자면 해마다 擴大되는 새마을 事業費가 今年만도 1천 5百 89億원의, 龍大한 額에 達하고 있는데 그 內容이 國費 842億원, 地方費 299億원, 融資其他 448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巨額의 새마을 事業費가 主로 農漁民의 直接間接의 所得의 뒷받으로 連結되어 있다.

다만 企業이 意識해야 할 것은 農民需要를 充足시키는 物資生産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값싸고 좋은 물건을 「生産的」인 生産理念에서 生産할 수 있을까 하는 點에 都市民衆 對한 것보다 倍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農에 은 打算하는데 있어서 都市民에 優位하다.

그리고 또 하나 附言해야 할 것은 輸出의 地域別 偏重是正策으로 中東과 유럽 地域에 對한 開拓熱意의 傾注問題이다, 프랑스가 EEC 共同變動 換率制에 復歸한 것과 英國이 國民投票에 依해서 殘留가 確定된 最近의 2大民事實이 유럽 共同體의 새 結束을 促連시킴으로써 對國外 經濟行動統一 이 強化될 것을 念頭에 두어야 할 줄 안다.

6. 物價·資金·技能人口 등의 難題

物價動態·資金事情, 技能人力の 需給문제 등 그 어느 하나도 轉換期에 處한 經營戰略과

크게 連關되지 않는 것이 없다. ① 不景氣에서 景氣回復에 轉換되고 ② 回復된 景氣의 持續期間이 길지 못할 듯도 한 展望 ③ 高度인플레이의 再現 豫算 등등을 勘案하는 姿勢에서 物價資金人力問題를 合理的으로 消化시켜야 할 일이다.

첫째로 上半期에는 昨年末에 比해 全國都賣物價指數가 14.1%, 全國都賣消費者物價指數는 19.8%가 각각 上昇하였다. 都賣物價는 前年同期의 31.3%보다 50%에도 훨씬 未及되는 上昇率의 鈍化상태이나 消費者物價는 도리어 上昇率이 약간 높아진 것이 注目된다. 物價上昇率이 所得增大率를 앞지른 것은 企業經營戰略의 重要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資金事情이 樂觀되지 않는다. 上半期에 韓銀은 一般貸出 1千億원의 回收를 비롯하여 通貨安定證券으로 314億원, 通貨安定設定으로 510億원 등을 凍結하였는데 이는 上半期の 財政撒布를 뒷받침하는 金融緊縮政策에 依한 것이다.

그런데 下半期에도 金融事情이 크게 好轉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經營戰略으로의 큰 誤算임을 免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制限의인 金融通貨政策이 下半期에도 계속되어야 할 經濟狀況이 推移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技能人力の 養成, 確保에 深甚한 留意와 積極의인 實踐이 있어야 하겠다.

技能人力の 養成을 위해 英國은 더 말할 것도 없고 美國이 63년에, 日本과 西獨은 63년에 職業訓練法을 制定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67년에 職業訓練法이 마련 實施되었다. 그리고 現在 全國 163個訓練所에서 47,000名의 技能工이 訓練中이며 今年부터는 企業體內의 養成業務가 義務化되어 있지만 技能人力問題가 經營戰略의 難題로 浮刻될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